

이미영 원장의 생활중국어

‘请(qǐng 치잉)’ 사용법

“请(qǐng 치잉)”은 우리말의 ‘~하세요,’~해 주세요’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정중하게 권할 때 주로 쓴다. 뒤에는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온다.

请坐! (qǐng zuò 치잉 쥬워) 앉으세요! 请看! (qǐng kàn 치잉 카안) 보세요!
请喝! (qǐng hē 치잉 헤어) 마세요! 请用! (qǐng yòng 치잉 용) 드세요!

“请(qǐng 치잉)”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권유할 때 홀로 쓰이기도 한다. 이때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모두 상황을 알고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문을 열어 주며’ 하면 ‘들어 가지지요’ 라는 뜻이다.

A: (차를 따라 주며) 请! (qǐng 치잉) 드세요
B: 谢谢 (xièxiè 씨에씨에) 고맙습니다



■ 씽씽중국어교습소

- ▲수업대상 - 유아/초·중·고생/성인 △위치: 평택시 장당동 631 2F
- ▲수업방식 - 1:1원어민 맞춤수업/회화 △T: 031-662-1119
- 수능중국어/HSK·TSC·BCT △H: 010-6359-1662



기고/ 유우상 평택소방서 재난예방과장

지진발생에 대비한 행동요령

아직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진에 대해서는 불감인 듯하다. 하지만 언제까지 안전지대일까? 학생들이 배우는 지구과학분야의 판에 대해서만 보아도 한반도가 있는 판 밑으로 일본 정도 위치에 있는 판이 들어가고 있다.

일본이야 유동적인 판 위에 있으니 항상 지진에 시달리지만 한국의 경우에도 판이 밑으로 깊이 들어올수록 지진의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판 : 연약권 위를 움직이는 지각과 일부의 상부 맨틀을 합한 단단한 암석권의 한 조각)

지진이 발생하기 전 준비사항들을 먼저 살펴보면, 탁자 아래와 같이 집 안에서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대피공간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한다.

지진이 발생하면 붕괴 등으로 인한 낙하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하게 유리창이나 넘어지기 쉬운 가구 주변 등 위험한 위치를 사전에 파악해 지진 발생시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설사 가까이 가게 되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두꺼운 실내화를 준비해 두어야 하고 지진과 화재가 연계돼 발생할 수 있기에 난로나 위험물 등은 평상시 주의해 관리하고 소화기의 사용방법을 익혀두어야 한다.

그러면 단순히 자신의 신체만 주의를 해두면 될까? 집 안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준비가 필요하다. 가구나 가전제품 등이 흔들림에 의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어야 하고, 꽃병과 같이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아야 하며 그릇장 안의 물건들이 쏟아지지 않도록 문을 고정하고 창문 등의 유리 부분은 필름을 붙여 파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밖에 집에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가스 및 전기는 미리 점검하는 습관을 가지고 건물, 담장 등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위험한 부분은 안전하게 수리를 해야 한다.

집에 혼자 산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가족이 있다면 비상시 만날 곳과 연락할 방법을 정해두어야 하고 응급 처치하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훈련하여 익혀 뒀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상용품들을 준비하고 사용방법도 숙지해야 한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라고 했다. 지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더욱 유용하게 대처할 수 있을 터, 관련 정부 기관의 연락처를 알아 두거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재난정보 앱을 설치하면 정보를 얻기에 수월할 것이다.



미니칼럼



“어르신 혜택 비예산 행정지도로 더 많은 혜택 찾아야”

임대희 <논설주간>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말더스 인구론’은 영터리로 실증됐다. 오히려 출산은 절벽이고 노인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30년이면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해를 거듭할수록 노인문제는 심각한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될 전망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보면 어느 것 하나 돈이 들지 않은 것이 없다. 일자리 창출, 자주국방 토대 확립, 미세먼지 30% 감소, 돈 걱정에 아이를 못 낳은 일, 여기에 노인 치매는 국가가 감당한다고 했으니 1년 예산 400조도 안 되는 국가 예산으로는 턱도 없는 일이다. 결국 증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가난은 나라도 못 막는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혜와 노력과 역할을 다른 어느 때보다도 크게 갈망하게 된다. 예를 들면 노인의 용돈은 주로 약값, 이미용료, 목욕값 교통비, 가정에서 부실한 생리적 식욕의 외식비 등이다. 이러한 지출을 30% 정도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

경기도 내 타 시·군에서는 협압, 당뇨 환자가 보건소의 처방전이 있으면 전액 무료의 혜택을 주는 곳도 있다. 이것은 그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와 시·군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평택시의 보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촉구하는 이유다.



아하! 재미있는 우리말 어원

점심

생성 시기: 1406년(태종 6년)

유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 세 끼의 밥을 먹게 된 것은 극히 근세의 일로, 그 이전에는 아침, 저녁의 두 끼 밥이 관례였다. 우리나라 문헌에 점심이 처음 나온 것은 태종 6년의 실록으로, 심한 가뭄이 계속되자 임금은 급하지 않은 백성의 부역을 면해 주고 각 관아에서는 점심을 폐하라고 전지를 내리고 있다. 곧 중앙 관서에서는 간단한 간식과 다시라는 티-타임을 가졌던 것 같으나, 여역의 백성이 점심을 먹은 것은 근세의 일로 여겨진다.

정조 때의 학자 이덕무의 ‘양언기’에 한국인은 조석 2식으로 한 끼 5홉씩 하루 한 끼를 먹는다고 했고, 병조참판이던 정의양은 양식 비축을 상소하는 글에서도 조석 2식을 기준으로 잡고 있다. 또 순조 때 실학자인 이규경은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고 해가 짧아지기 시작하는 9월의 추분 날부터 이듬해 정월까지 다섯 달 동안은 점심을 폐하고 조석 두 끼만 먹었다고 한다.

본뜻: 점심은 선종(禪宗)에서 선승들이 수도를 하다가 시장기가 들 때 마음에 짐을 짊어주지 않고 조금 먹는 음식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래서 마음 심(心)에 점 점(點)을 쓴 것이다. 이처럼 점심은 간단하게 먹는 중간 식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흔히들 중식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일본식 한자어이므로 되도록 쓰지 않도록 한다.

출처 : 우리말의 나이를 아십니까?

